스터디를 진행하기에 앞서

1. 스터디를 하는 이유
   1. 회사적인목적
      1. LucidCore의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1. 금년 국내 경제사정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제기억에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만, 뭔가 대비한다는 느낌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2. 미래에셋의 의존도를 줄인다.
         1. 대다수의 기업의 IT관련 부분을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인력이 외주인력입니다. 언제든지 회사 사정이 안좋으면 인력을 감축시키기 쉽도록 구성해 놓는 것입니다.
         2.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로 외주인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실제상황을 보면 외주인력이 많을 수록 쉽사리 외주인력을 감축시키기가 곤란합니다. 내부인력이 적으면 내부인력은 외주인원의 관리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 수행역량이 없어지게 됩니다. (혜화동 KT화재같은 상황이 됩니다.)
         4. 그래서 미래에셋은 내부인원을 보충하고 상당수의 업무를 내부인원에게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상황이 어쨌든 무언가 힘들어지면 외주인력을 줄이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도 2024년에는 미래에셋과의 계약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6. LucidCore에서도 계약처가 좀 더 다변화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나 금융권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 현재 미래에셋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ITGen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미래에셋에서 수정한 것으로 현재 국내 대형증권사 일부만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사용하는 Script도 Lua라는 스크립트로 게임분야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범용적인 스크립트라고는 할 수 없으며 플랫폼도 범용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 대형증권사를 대상으로 만든 플랫폼이나 툴은 7개정도 팔고 나면 더이상 팔 곳이 없습니다.
         8. 플랫폼을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이 아니라 기본라이브러리 정도의 형태로 판매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플랫폼의 버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각 사이트별로 커스터마이징을 하다보니 기본 플랫폼의 버전관리가 잘되지 않습니다. 각 사이트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공급한 형태가 되게 되고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들어서 관리를 포가히고 있는 형태입니다.
         9. 앞으로 구성원을 화면 구성이 아니거나 다른 형태의 플랫폼위에 앱 등을 작성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개발자의 입장
      1. IT업계는 지속적인 인력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사람들은 구직난이라고 하지만 IT업계는 지속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 경력신입이라는 허수
         1. 그러나 실제 구직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전혀 실감할수 없는데, 이유는 경력신입이라는 말도안되는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2. 경력신입은 말도 안되는데 실제로 구인시장에 가보면 흔하게 이를 모집합니다. 그러고 이를 충족하는 사람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는 근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프리랜서 바닥에 들어온 이후 꾸준히 그렇습니다.)
         3. 경력신입은 초급단가를 받는 경력직입니다. (즉 개인이 자신의 등급을 낮추면 가능합니다.)
         4. 또는 부풀려진 경력입니다.
   3. Script / 4GL언어에 대한 무시
      1. 프로그램은 C로 시작했지만 회사에 처음 입사해서는 VB로 화면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Windows3.1에 Network기능이 추가되기 시작할때였습니다.